

특집 · 양계산업 현황과 흐름

» 국내 양계 기자재 산업 현황과 흐름

국내 양계산업과 기자재산업의 진로



곽 춘 육
(주)건지 대표이사

최근 양계업계는 깊은 수렁에 빠져 바둥대고 허우적거릴 뿐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뜩이나 국내외 경기의 침체에다 소비부진까지 겹쳐 양계업계의 어려움은 가속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업체들의 호시탐탐 노리는 눈빛도 예사롭지 않아 금년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과연 한국양계호의 진로가 세월호 만큼이나 위태롭기만 하다. 설상가상 일찌감치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터졌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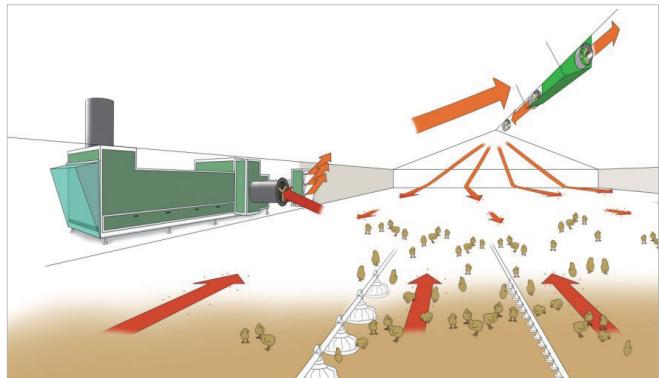
1. 갈 길은 멀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은 국제경쟁력을 가졌다 단언하기 힘든 형편이다. 일부 업종은 그나마 어느 정도 위상이 정립되었다고는 하나 축산기자재업계는 근본적으로 작은 시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이다. 값싸게 잘 만들어 오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기자재는 사료나 약품처럼 소모품이 아닌 또 다른 속성 때문이다.

축산업에서 생산성향상을 위해서는 축사환경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단열·보온을 위한 건축구조물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단열·보온은 물론 난방 및 환기시설 등이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 많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것은 자금의 빈궁함도 있지만 농가들의 인식부족이 문제인 것 같다. 자신들의 축사를



▲ 국내에 설치된 열 교환기



▶ 열교환기의 작동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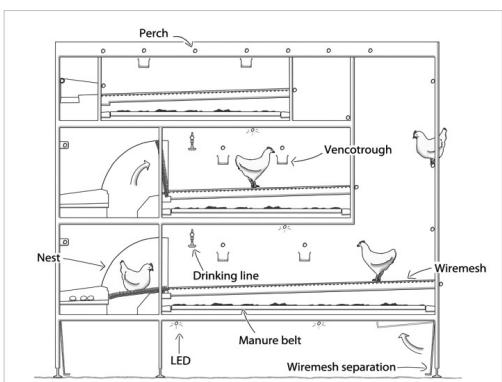
지으면서 ‘잘 지으려는 것’ 보다는 ‘싸게 지으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축사는 단기간에 쓰여지는 소모품이 아닌 장기간을 사용해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재산임을 인지해야 한다.

더구나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요즘에는 기상이변까지 겹쳐 예상치 못한 강추위와 폭염은 장난이 아니다. 다행히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난방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언제 또 중동지역에 전쟁이 발발하여 유가가 폭등하고, 곡물생산지가 가뭄이나 홍수로 인해 곡물 가격 폭등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어느 경우에라도 대비하여 생산성향상과 원가절감은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실례로 열 교환기는 기름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

실정에 ‘딱’이다. 축사에서 환기로 인하여 빠져나가는 열은 다시 회수하여 에너지를 절감(약 70%)하고, 항상 일정한 양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쾌적한 계사 내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일거양득이라는 것이 사용자들의 평가이기 때문이다.

2. 복지농장의 길목에서

유럽에서 불어온 복지농장이 이제 국내에도 바람이 불고 있다. 가축을 위한 복지농장이라고는 하나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가축이고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인간을 위한 복지농장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과거에 비하여 추가적인 자



▲ Vencomatic Bolegg Gallery 및 도면



특집 · 양계산업 현황과 흐름



▲ 국내에 설치된 6단 케이지 육계농장 및 설비



▲ 중국에 설치된 3단 케이지 육계농장 및 설비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4단 또는 6단 육계 케이지를 보급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4계 절의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온도와 습도는 각 층별로 가로막고 있는 계분벨트에 의하여 각양각색으로 나타나 출하 시 균일도면에서 적지 않은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라도 하듯 아웃나라인 중국은 최근 육계사에 3단 케이지를 보급하는 초기단계에 있으며, 그래도 검증된 플라스틱망을 깐 단층 고상식 계사가 가장 일반적이다.

현재로서는 어느 시스템이 우리나라 환경에 최적이라고 선뜻 말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왜냐하면 기존의 4단 육계 케이지의 문제점이 보완된 6단 케이지는 금년에야 처음으로 설치되어 자료다운 자료가 밝혀지지 않았으니 말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의 기후환경과 축사구조로서 맨땅에 왕겨를 깔고 사육하는 기존의 평사방식은 어떠한 형태로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중적인 의견일 뿐.

3. 다수사육의 유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좁은 땅덩어리에

금이 투입되어야 함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젠가는 실현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복지농장제도가 실현되고는 있지만 아직 미미한 보급단계에 머물고 있고, 육계분야에서는 상당히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즉, 유럽과 우리나라의 사육환경이 과거부터 달라져 왔는데 이제야 동일하게 적용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농가에서 추가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복지농장을 실현해야 하는가라는 회의감에 젖어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소비자들도 복지 농장에 대한 인식의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고.



▲ 국내에 설치된 고상식 슬랫 계사



작은 규모의 계사를 통하여 가능만하다면 많은 숫자의 닭을 사육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가(地價)가 높으니 이해는 하면서도 이제는 양과 질을 따지는 현실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대목이다. 더더구나 이제는 닭고기에도 품질에 따른 가격차별화가 실시되는 현실이지 않은가!

동물복지논의 면적당 적정 사육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된다. 권장하는 적정사육수는 농가의 수익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가축이 건강하게 사육되면서 수익성도 좋은 최대공약수일 뿐이다. 적정한 숫자로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것이 수익극대화로 이어짐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갈수록 늘어나는 출하중량을 감안한다면 적정사육수의 준수는 절실히 요구된다.

4. 결론

이렇듯 국내외 양계산업은 친환경, 생산성향상, 복지농장 등을 외치며 동일한 면적에서 최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시스템들이 세계시장의 벽을 허물고 있다. 최근 모 경제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면 중국이 세계의 철강산업에서 차지

하는 생산과 소비의 점유율이 모두 절반을 넘어섰다. 세계인구의 절반이 되지 않는 중국이 철강에서, 그리고 돼지사육에서 세계의 절반을 생산하고 소비한다는 것은 유념할 일이다. 즉, 중국이 이러한 속도라면 조만간 닭도 세계의 절반을 사육할 날도 머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한한 시장을 가까이 두고 우리 국내 축산기자재업계는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긴장감에 떨면서 들고 있지도, 놓지도 못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그러면 전업을 할 것인가? 그것도 녹록하지가 않다. 역시 놀던 물에서 방법론을 찾는 것이 현명하리라. 그 대안으로는 고객들이 요구하는 One-Stop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과 제품력을 갖고 있는 업종이 서로 뭉쳐 국내시장은 물론 수출시장을 공략하고, 또한 이미 해외에 진출한 한국업체와 연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미 진출한 업체는 나름대로 수업료를 내며 현지에 대한 축적된 정보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만이 글로벌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은 “생존이 곧 성공이다”라는 공식이 보편화된 사회이기에. **양계**